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27 색채와 국기

이스라엘 국기, 1891년 시온주의자 운동의 깃발 바탕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기(Flag of Australia)는 1909년에 제정되었고, 1953년에 개정되었으며, 원주민들은 별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파랑과 빨간 십자가 그리고 하얀 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얀색 별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와 직할지 그리고 남십자성을 상징한다.

요르단 요르단의 국기는 1928년에 제정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에 반란을 일으킨 아랍의 깃발에서 따온 것이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검정과 하양 그리고 초록 수평선, 붉은 삼각형과 하얀 칠 각별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은 우마이야 왕조를, 하얀색 칠 각별은 코란 첫 장의 7개 행과 통일을 상징한다.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국기는 1828년에 제정되었으며,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구성된 17개의 가로줄 무늬가 그려져 있었으나 1830년에 다시 제정되었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하양과 파랑 그리고 '5월의 태양'을 의미하는 노랑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는 1991년에 소련의 국기에 하얀 선 2개와 파란 선 1개가 그려져 있는 기가 사용되었으나 1991년에 새로운 국기가 제정되었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파랑과 하양 그리고 초록, 3색 사이에 빨간색가

는 선과 하얀색 초승달 그리고 하얀색 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 달과 별은 이슬람, 티무르 왕조시대의 천문 유산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기는 1891년에 일어난 시온주의자 운동의 깃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948년에 제정되었고, 유대인이 기도할 때 덮어 쓰는 숄(shawl)인 탈리트(Tallit)을 암시한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파랑과 하양 그리고 파란 별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 하양은 국민의 기호 색이다. 신성한 파란색과 순수한 하얀색은 시온주의의 색이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기고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저출산 돌파구 마련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난임(難妊)이다. 난임이란 통상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취직이나 주거 등 이유로 결혼·출산을 미루다 보니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환자도 늘고 있다. 전남도에만 난임환자가 지난해 기준 6000명이 넘는다. 난임환자들은 임신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 시험관 아기라고도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 등을 시도한다. 하지만 시술비가 50만원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데다 임신 성공까지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주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 정부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대 지원횟수 제한과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형평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전남도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횟수 및 소득 기준을 철폐해 왔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에 전남도 자체적으로 시술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양방시술이 부담된다면 '한방 난임시술지원'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난임치료 방법도 있다. 4개월 간 한방치료에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를 줄여 주는 등 난임환자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도 돋보인다. 전남에서 지난 11월까지 양·한방 난임치료를 받은 3556명 중 765명이 임신해 21.5% 성공률로 출산율을 높이는 크게 기여했다. 이보다 더 좋은 출산 지원책이 있을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환경 및 인프라 조성 등 간접사업에 비해 임신 및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난임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가임여성의 난자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난자를 장기적으로 저장해 장래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난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임문제 극복을 통한 저출산 대책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책임지고 낳게 해 주는 게 전남도의 당연한 몫이다.

다만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 제한 없이 난임시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며 난임시술지원 확대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 전남도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비롯한 출산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난임부부에 임신 성공의 희망, 지역에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농촌 삶의 질 높여주는 생애교육

기고



김관식 시인·평론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마을은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여러 사정에 의해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다. 대부분 노인들만 빈 집을 지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떨어져 있고 농어민 인구가 많은 광주 전남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인근의 도시로 대부분 이주하고 농촌과 어촌에는 노인들과 부모를 모시느라 떠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살고 있다. 그들 중 젊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지만 노층각으로 살고 있다. 농어촌으로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신붓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형편이 괜찮은 노층각은 해외에서 신붓감을 들여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노층각으로 늙어가고 있다.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은 점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자 해외 근로자를 들여와 그들이 일손부족을 거두고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마찬가지다. 고깃배, 염전, 양식장 등 어촌의 일손은 해외 근로자 아니면 도저히 운영해나갈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3디 업종 종사자들이 모두 외국근로자가 도맡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3디 업종은 종업원의 임금을 제 때에 주지 못하고 체불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이었던 해외 근로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의 3디 업종과 농촌은 외국 근로자들이 아니면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농촌의 생활문화를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행정기관에서도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농촌 노인들에게 반찬거리를 사주기도 하고, 100원짜리 버스표 지원 등 복지차원에서 농민들을 돕고 있고, 농민들에게 농업 직불금을 주어 생활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촌 복지제도가 생활개선에 집중되었을 뿐 농촌의 문화생활에는 등한시하는 감이 없지 않다.

농어민의 삶에 대한 질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농어민들이 문화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생애교육이나 정기적인 각종 문화 건강 순회 강좌 등 다양하게 건강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화의식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개선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져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가 아니다. 단순한 먹거리만을 위해 일해야 했던 시대가 아니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농촌복지제도가 잘 되어 행정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정기적인 의료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평생교육 시대에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농어민들이 문화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농촌마을의 저수지 부근의 인근 도로나 낚시터 주변에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다. 노인 일자리로 행정기관에서 낚시터나 유휴지 등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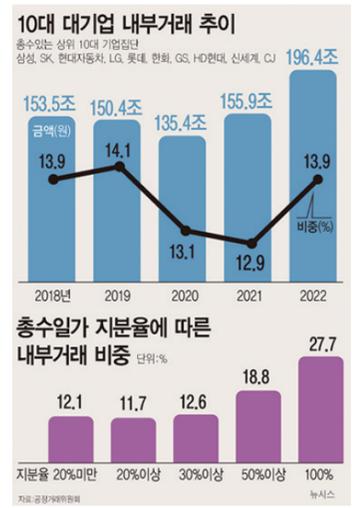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정착될 무렵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마을 꽃길 조성하기, 등등 부지런히 애환활동을 생활화하였다. 그런데 농촌마을이 피폐해지고 있다. 아무도 자신의 농사일이 아니면 공익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농어촌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에 따라 귀농귀촌을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벌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도시의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지역의 명소를 재정비하여 관광지화 하고, 대단지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으로 지역문화축제를 여는 등 다각적인 인프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어촌의 활기를 되찾고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탄탄하게 정비된 지역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다소나마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의 정치, 교육, 문화, 경제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일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고장을 찾도록 다각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먹거리 장터 위주의 축제는 일시적일 뿐이다. 연중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다양한 구경거리와 그 지역만의 문화와 먹거리,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참신한 아이템의 관광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사람들이 문화실조에 걸리지 않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위주의 복지정책보다는 그들에게 사는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문화교양예술행동의 장려, 건강 체육생활 등 생애교육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소방차 전용구역은 꼭 비워주세요”

독자투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

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다시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본다.

문종명 (봉산 119안전센터 소방위)